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우 진형(오성제일교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 비평적 접근	132
창 22장 1-19절의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기이해의 한 흐름을 살펴본다. 창 22장의 편집자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의 예화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평화와 공존을 위한 가치표준을 제시한다. 하나님 경외를 통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델로서 축복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다.	
Woo, Jin-Hyung Abraham's Sacrifice of Isaac: A Redaction Criticism of Genesis 22:1-19	132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 비평적 접근*

우 진형 | 오성제일교회(평택대)

1. 문제의 제기

창 22장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창 12장 1-3절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의 극점에 위치한 이야기로, 1)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2) 심오한 신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또한 명백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도된 한 단위의 이야기로서, 3) 비범한 문학적 기법에 의하여 정교하고 완벽하게 기술된 예술 작품이다. 4) 학자들은 이 단락이 짧은 문장에 많은 것을 담아 놓았기에, 종래의 주석들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 내지 못해왔다고 보았다. 5)

창 22장 1-19절은 창 12장 3절에 서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 본 논문은 필자의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전기)의 일부를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1) 한 동구, 「오경이해」(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55쪽.

2) C. 레빈, 「편집자 아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75쪽.

3) 베스터만은 본문이 이야기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았다. C. 베스터만, 「창세기 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들, 1998), 239쪽.

4) 김 이곤,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난 신앙과 신학의 해후-창 22:1-19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신학연구」 제29집(2003년 12월), 9-30쪽을 참조함.

5) G. 웬함, 「창세기(WBC주석)」(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39쪽. 레빈 역시 주석들이 본문의 깊이를 온전히 측량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C. 레빈, 「편집자 아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75쪽.

재서술할 뿐 아니라, 약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창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최 정점이면서 동시에 종결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문의 신학적 의미 역시 창 12장 3절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⁶⁾

창 22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주된 학문적인 관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인신 희생제의 동물 희생제로의 전환에서 보여주는 종교사적 전환과 이스라엘 제의의 정확에 관한 문제,⁷⁾ 인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문제,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관한 문제,⁹⁾ 순종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절대적 신앙¹⁰⁾을 중심으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과 성전 산과의 관계¹¹⁾에 대한 문제, 창 22장의 자료상의 문제,¹²⁾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론적 해석¹³⁾ 등이다.

-
- 6) 웬함은 본문을 창 12:1-3절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조 G. 웬함, 「창세기(WBC주석)」(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24-225쪽. 브루거만 역시 본문이 창 12: 1-4a절에 상응한다고 말한다. W. 부르거만, 「창세기」(강 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86쪽. 창 12: 3의 축복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한 동구 “아브라함의 비전과 한국의 비전: 세계를 위한 축복의 중재자,” 「한국기독교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상)」(2008년 10월 17-18일), 29-45쪽.
- 7) 최초로 이러한 문제를 제시한 학자는 궁켈이며, 궁켈은 창 22장의 이야기가 ‘인신 희생제’가 ‘동물 희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원인론적 기사’였다고 보았다. H. Gunkel, *Genesis*. (M. E. Biddle 옮김), (Macon: Mercer Univ. Press, 1977), 239-240쪽. 또 김 이곤, 「창세기(전망성서주해)」(서울: 전망사, 1993), 140-142쪽.
- 8)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3-264쪽을 참조함. 유대주의적 해석에서는 본문을 “옴기”의 상황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오 원근, “희년서의 아브라함” 「한국구약학회 제78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08년 9월 25일), 95-97쪽을 참조함.
- 9) 김 이곤은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았다. 김 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79-87쪽.
- 10) 천 사무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성경연구」 제8권 12호(2002년 12월), 45-56쪽을 참조함. 이외에도 T. 리일, 「창세기(하) (베이커성경주석2)」(이 기문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84), 269-273쪽을 참조함.
- 11) 칼리미는 역대기 사가에 의해 제 2성전시대에 사마리아의 “그리심산”과의 정통성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모리아산을 예루살렘과 연결시킨 것으로 본다. I. Kalimi, “The Land of Moriah, Mount Moriah, and the Site of Solomon’s Temple in Biblical Historiography,” *HTR* 83/4 (1990), 345-362쪽.
- 12) 15-18절의 연대 설정의 문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15-18절)을 일반적으로 J문서 혹은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G. 웬함, 「창세기(WBC주석)」(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23-224쪽을 참조함.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레빈에 의해 진행되었다. C. 레빈, 「편집자 야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75-277쪽.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의 종교학적 의미나 등장 인물들에 대한 신학적 접근 등, 창 22장 1-14절이 들려주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 그 자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창 20-22장을 기록한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한다. 다시 말하면, 족장사의 초기 문헌(층)과 개정층¹⁴⁾의 차이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바, 족장사 개정층에서 새로이 제기하고자 했던 신학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족장사 개정층¹⁵⁾을 간단히 설명하면, 창 20-22장에 담은 4편의 본문을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였다. 창 20-22장의 편집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승자료들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창 22장 1-19절은 창 20-22장에 이르는 족장사 개정층의 신학 사상을 집약해주는 부분으로, 편집자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관의 완성을 위한 가치 표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족장사 개정층의 편집자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가치 표준의 내용은 창 20-21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서, 그리고 족장사의 초기 문헌(편집)층과 개정층의 전승사적 비교를 통하여 본문에 접근할 때 알 수 있을 것이며, 본문의 역사적 삶의 자리와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 또한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 22장 1-19절의 본문 분석을 통해 족장사 개정층의 편집자가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새로운 세계관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가치 표준을 찾아보고자 한다.

13) 왕 대일은 이삭에 초점을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시킨다. 왕 대일, “아케다(aqedah)와 골고다 - 창세기 22: 1-19의 재해석,” 『신학사상』 제115집(2001년 12월), 211-236쪽.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형상으로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을 받아들였다. G. 웬햄, 『창세기(WBC주석)』 (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46쪽.

14) 알베르츠는 기존의 아브라함 이야기(족장사 제1판)에서 창 20-22장을 분리하여 ‘족장사 제2판’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초기 문헌층으로, 창 20-22장을 개정층으로 규정하였다. R. 알베르츠, 『포로시대 이스라엘』 (배 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333-334쪽을 참조함.

15) 족장사 개정층(족장사 제2판)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R. 알베르츠, 『포로시대 이스라엘』 (배 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346-355쪽.

2. 주석 단위의 결정

1) 단락의 시작

창 21장 22-34절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우물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고, 창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내용적으로 분리된다. 또한 창 22장은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일방적인 어투¹⁶⁾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창 21장의 이야기와 분리되고 있다. 따라서 창 22장 1절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 단락의 끝

창 22장 14절은 장소의 원인론을 통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를 종결짓는다. 창 22장 20절 이하는 나홀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사용되는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일방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¹⁷⁾ 그 사이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창 22: 15), 축복과 증대의 약속(창 22: 16-17), 축복의 중재자로서의 약속(창 22: 18), 장소의 전환을 알리는 보도(창 22: 19)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축복과 증대의 약속(창 22: 16-17), 축복의 중재자의 약속(창 22: 18)은 창 22장 1-14절을 전제하며,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하여 서술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창 22장 19절의 장소의 전환 보도는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통해 창 20-21장과의 연결점을 제공하면서, 창 22장 15-18절의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을 포함한 창 22장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를 종결짓는다. 따라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창 22: 1-14)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창 22: 15), 증대의 약속(창 22: 15-18), 축복의 중재자의 약속(창 22: 18), 장소의 전환 보도(창 22: 19)를 함께 묶어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16)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וַיְהִי אַחֲרֵי הַדְּבָרִים הָאֵלֶּה) 바여히 아하르 하드바림 하엘레는 아브라함의 여정 메모에서 앞의 문맥과 연결되기 위해 사용된다. 한 동구, 「창세기 해석」(성남: 이마고데이, 2003), 24쪽.

17) 한 동구, 「창세기 해석」(성남: 이마고데이, 2003), 24쪽.

3) 문학 비평과 창 22장 1-19절의 형성사

창 22장 1-19절에서 창 22장 15-19절을 제외한 창 22장 1-14절은 전체적으로 통일적이다. 창 22장 1-14절은 분명한 시작과 끝, 일관성 있는 서술, 그리고 내용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이야기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창 22장 15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 창 22장 1-14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창 22장 16b절과 창 22장 18b절은 '축복 형태로 주어진 약속'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창 22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과 증대의 약속이 주어지며, 창 22장 18a절 역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중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

폰 라드는 창 22장 1-14절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그 자체로서 독립된 이야기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았다.¹⁸⁾

레빈은 창 22장 1-14, 19a절의 이야기가 하나의 단락이었던 창 21장 22-34절과 창 22장 19b절을 분리하여 그 사이에 삽입된 것이며,¹⁹⁾ 창 22장 15-18절은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²⁰⁾

그러나 창 22장 15-18절은 그 안에서 분명한 문학적 성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창 22장 16b절과 창 22장 18b절은 각각 '축복 형태로 주어진 약속'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로 중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축복 형태로 주어진 약속'이 창 22장 17절과 창 22장 18a절에 서술된다. 창 22장 17절과 18a절은 전혀 다른 축복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창 22장 16-17절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보상(창 22: 16)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창 22: 17a), 후손의 번성(창 22: 17aβγ), 강대함(창 22: 17b)을 약속한

18)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2쪽을 참조함. 한편 웬함은 1-14절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G. 웬함, 「창세기(WBC주석)」(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24-225쪽을 참조함.

19) C. 레빈, 「편집자 야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75쪽.

20) C. 레빈, 「편집자 야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79쪽. 알렉산더는 창 22장 14-18절의 추가적 편집에 대해 주장했던 여러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T. D. Alexander, *Abraham in the Negev* (A source-critical investigation of GENESIS 20: 1 - 22: 19),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7), 83-84쪽.

다. 그러나 창 22장 18a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중재자'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며, 이것은 창 22장 17절의 축복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창 22장 18b절은 창 22장 18a절의 개정을 통한 문맥의 단절에 대하여 이를 다시 연결하는 재수용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문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증대로 설명하고자 했던 초기 문헌층(창 22: 16-17)과, 초기 문헌층의 신학적 해석을 개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중재자 됨'이라는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는 개정층(창 22: 18)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문의 구조와 주석

창 22장 1-19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가치 표준을 위한 예화(창 22: 1-14),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창 22: 15-19).

'가치 표준을 위한 예화'는 표제(창 22: 1 하나님의 시험), 과제의 부여(창 22: 2), 과제의 수행(창 22: 3-9), 시험의 통과(창 22: 10-12),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창 22: 13-14)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은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야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증대의 약속으로 주는 축복(창 22: 17-18)과 축복의 중재자(창 22: 18)가 됨에 대한 두 가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가치 표준을 위한 예화(창 22: 1-14)

(1) 표제(창 22: 1) -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창 22: 1a)라는 선언적인 표현은 표제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임을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개인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곳 뿐이다.²¹⁾ 베스터만은 이 단락에서 시험이 본문의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이차적 해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²⁾ 이것은 이 이야기의 기본

21) 정 태현,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창세기 해설서」(광주: 생활성서사, 1992). 104쪽.

22) C. 베스터만, 「창세기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들, 1998). 239쪽.

방향과 중심 주제가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번제 사건'이나 본문에 출현하는 등장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와 아브라함의 응함'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질이나 가치, 또는 그의 진의나 믿음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죽장사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일종의 교육 과정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²³⁾ 여기에서 '시험하다'(piel형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다'²⁴⁾의 의미로, 어떤 사람의 가치나 성품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격 등을 판단하는 행위이다.²⁵⁾ 특별히 본문에서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²⁶⁾ 본문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어, 전형적이고 교훈적인 죽장의 모델로 삼고 있다.²⁷⁾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험은 대상(아브라함)에게 논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저항을 일으키는 과제의 부여를 통해 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되거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인식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으로 볼 수 있다.

(2) 과제의 부여(창 22: 2)

창 2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23)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신적인 약속과 출발(창 12: 1 이하, 15: 1이하), 기근(12: 10이하), 세 나그네의 방문(창 18: 1이하) 등도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3쪽을 참조함.

24) **נִסָּה**는 일반적으로 P형으로 '시험하다, 검사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사람]에서는 '그를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다'(왕상 10: 1; 대하 9: 1; 단 1: 12), '가부(可否)를 시험하다'(출 15: 25),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다'(창 22: 1; 출 16: 4; 20: 20 등),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다'(출 17: 2; 민 14: 22 등)의 의미로, [+사물]에서는 '시도하다, 실험하다, 시험해 보다'(삼상 17: 39; 사 2: 22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에디오피아어에서는 '유혹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W. 게제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 정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510쪽.

25) 서 인석,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 창 22: 1-19의 구조분석," 「기독교사상」 1983년 5월호(통권 299호), (1983년 5월), 97-119쪽을 참조함.

26) TDOT (IX), 449-450쪽.

27) 창 22: 1-14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약속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전적 소유는 아닌 이삭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의 삶을 보여주는 예로,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설 - 실행된 약속에 대해 의심하는 것까지도 벗어버릴 것을 포함하는 - 로서의 시험이라는 사상이 있다. TDOT (IX), 449-450쪽.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변화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과제는 ‘아들의 바침’이다.

창 22장 2a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로 설명되고 있다.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아들’과 ‘독자’라는 표현은 이삭의 현재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아들’로서의 이삭의 의미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아들’로서의 이삭의 의미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창 11장 27절 이하의 계보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자식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태고사에 나타난 저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창 12장 1-3절에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다. 따라서 ‘아들’로서의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 된다.

창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증대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증대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의 육신에서 낳은 자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창 15장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식에 의한 상속을 말씀하셨지만, 아들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다. 다만 증대에 관한 약속을 통해 그 결과만을 알려주셨다(창 15: 18b-21).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세운 나라는 주변의 민족들²⁸⁾을 정복하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창 15장의 증대의 약속은 포로 전환기의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될 때, 의미 있는 약속으로 이해된다. 창 15장 1-6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대의 약속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참한 현실과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암담한 미래에 대해 절망하는

28) 창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대(5절)와 강력함을 약속하신다. 19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복할 10개의 민족을 언급하고 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문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창 15: 19-2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서, 여기에서 ‘아들’로서의 이삭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루게 될 많은 백성을 가진 강력한 국가의 첫 출발점이다.²⁹⁾

창 18장 1-15절에서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아들을 약속 받는다. 이 약속은 창 21장 1-8절에서 실현된다. 창 18장의 본문은 이삭의 존재가 그 양친의 자연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영속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존속과 번영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간의 작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다. 창 18장 18-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의 이유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과, 둘째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 18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גִּבּוֹר וְיָגֵד**(고이 가들/위대한 국가)의 이상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위대한 꿈 ‘위대한 국가’가 한 여인 사라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사라에게 내린 아들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씨앗이다. 여기에서 ‘아들’로서의 이삭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씨앗이고, 새로운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씨앗이다.

창 18장의 본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³⁰⁾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처지가 되지 못했고, 암담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한 상황이었다. 민족의 정체성 상실과 민족의 존립 문제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의 약속은 민족 정체성의 보존과 미래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상의 본문들에서 나타나는 ‘아들의 약속’은 각각 포로기 또는 포로 전환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포로 전환기의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귀환과 함께 부여된 이 과

29) 한 동구, 「창세기 해석」(성남: 이마고데이, 2003), 255쪽을 참조함.

30) 창 15장은 한 동구의 「창세기 해석」 238-260쪽을, 창 18장은 한 동구, “약속의 신학: 족장사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통권 27집(2008년 3월 31일), 90-112쪽을 참조할 것,

제는 성전의 재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귀환 공동체의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점이 회복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의 독립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³¹⁾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신생 독립국의 이상은 증대의 신학으로 펼쳐진다. 약소국의 현실에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하여 강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열망이 증대의 신학으로 도출된 것이다.³²⁾ 비참한 현실에서 도출된 증대의 신학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적의 위협에 대한 자기 보호와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과 함께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정복과 지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포로 전환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들의 약속”에 나타나는 ‘아들’로서의 이삭의 의미는, 민족 정체성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에서 이스라엘이 희망하는 미래의 이상 국가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약속의 씨앗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들’로서의 이삭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강한 민족, 정복과 지배를 통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의 시초이며, 국가의 구성원을 이루는 선택된 사람들의 기준점이 된다.

(4) 과제의 수행(창 22: 3-9)

창 22장 3-9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의 이동을 진행한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편집자의 표현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다.³³⁾ 아브라함의 준비(창 22: 3), 아들과 두 하인과 함께 한 사흘 길의 여정(창 22: 4), 번제를 위한 이삭과의 동행(창 22: 6),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는 것(창 22: 9) 등의 내용을 편집자는 간략하게 서술하여 기본적인 내용만을 전달해 주고 있다. 편집자는 이러한 이야기의 빠른 전개를 통해 이 부분이 독자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아님을 간접적

31) 한 동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00-103쪽.

32) 이러한 증대의 신학은 창 1: 26-28과 9: 1-7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 동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38-260쪽을 참조함.

33) 김 이근,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난 신앙과 신학의 해후-창 22:1-19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신학연구」 제29집(2003년 12월), 9-30쪽을 참조함.

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감정적 표현의 억제제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³⁴⁾ 다음 이야기의 전개에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대화의 장면에서도 편집자는 특별한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창 22: 5)은 독자들에게 '이삭'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 속에 긴 여운을 남게 하여³⁵⁾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창 22장 7-8절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역시 뛰어난 문학적 표현으로, 절제된 표현을 통해 편집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서로 어긋나는 감정의 세계를 독자의 상상 속에서 열리게 한다. 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은 독자로 하여금 이 본문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창 22장 7b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불과 장작은 있으나 번제용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독자는 이 순간 아브라함과 동일시 되어, 이미 알고 있지만 부인하고 싶은 사실, 즉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나의 소중한 존재이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다.

편집자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대답(창 22: 8aβ)은 편집자의 신학적 성찰의 결과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으로, 편집자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어 이삭의 질문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독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또한 편집자는 창 2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로 자명한 사실이 된 그것을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열어 놓아,³⁶⁾ 독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의미를 재확인시키며,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과제의 내용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이야기의 핵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 8aβ)”라는 아브라함의 답변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

34) 폰 라드는 본문과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의 비교를 통해, 감정적 표현의 삼가를 통해 무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저자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G. 폰 라드, 「아브라함의 제사」(장익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24-29쪽을 참조함.

35) 폰 라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것으로 종들에게 핑계를 대었다고 설명한다.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4쪽.

36) C. 베스터만, 「창세기주석」(강성열 옮김), (서울: 한들, 1998), 240쪽.

실 분임을 암시하여,³⁷⁾ 시험의 결과와 이야기의 결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임하여 결단하고 행동한 이후에 전개되는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 위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창 22장 14a 절에서 분명히 드러날 암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편집자의 신앙 고백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이삭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5) 시험의 통과(창 22: 10-12)

창 22장 10절에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핵심 과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창 22장 10절은 아브라함의 과제 수행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는 다시금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긴박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들려지는 절정의 순간(창 22: 10),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창 22: 11)이 하늘에서 들려온다.³⁸⁾

창 22장 12a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여되었던 과제 수행의 중지를 명령한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치는 희생 제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복종이었다.³⁹⁾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두려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며,⁴⁰⁾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중지 명령을 이끌어냈다. 하나님의 중지 명령은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아들/독자의 포기)의 수행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였고, 시험의 통과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37) 김 이곤은 이 아기의 핵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본다. 김 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79-87쪽.

38)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름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저지하는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 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31쪽.

39) 이 승구,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창 22: 1-19)”, 『교회와문화』 제14호(2005년), 83-97쪽.

40) 앨런 P. 로스, 「창세기(두란노 강해 주석1)」 (강 성열 옮김), (서울: 두란노, 1993), 130-134쪽. 한편 폰 라드는 ‘하나님 경외’가 구약성서적 종교성의 표현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신적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으로 이해한다.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6쪽을 참조함.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으며, 아브라함이 가진 새로운 가치관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거치며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열망은 후손의 약속⁴¹⁾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은 강력한 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민족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치 기준이다. 따라서 이삭(아들/독자)의 포기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중대의 신학의 포기이고, 민족 정체성에 기초한 자기 중심주의의 포기이다.

(6)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창 22: 13-14)

창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은 덩불 속에 있는 수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폰 라드는 이미 수양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⁴²⁾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수양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발견되었다. 편집자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창 22장 14a절은 장소의 원인론을 제공한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이름을 $\eta\alpha\gamma\lambda\alpha$: $\eta\eta\eta$:(야훼 이르에)로 명명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곳에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로, 이러한 장소는 제의의 장소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명의 명명은 그 장소에서의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서술이 아니라, 편집자의 언어적 유희로서, 고대의 한 장소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편집자의 첨가에 해당한다.⁴³⁾

‘야훼께서 섭리하실 것이다’($\eta\alpha\gamma\lambda\alpha$: $\eta\eta\eta$: 야훼 이르에)라는 의미는 ‘야훼께서 준비하실 것이다’의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편집자의 가치 표준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은 야훼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절대 신뢰하고 수용 위임함과 동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제시한다.⁴⁴⁾

41) 이러한 약속은 창 15장과 창 18장에 표현되어 있다.

42) 폰 라드는 저자가 기적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6쪽.

43) 장소의 원인론은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지명을 설명해 주었던 언어적 유희만을 제공한다. G.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6쪽.

창 22장 14b절에는 가치 표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서 **אֱלֹהֵי יְהוָה**(야훼 이르에/야훼께서 섭리하실 것이다)는 **אֱלֹהֵי אֲרָם**(야훼 예라에/야훼께서 산에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다)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구약 성서의 한 저자는 야훼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산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한다.⁴⁵⁾ 야훼는 산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세상은 야훼의 통치 아래에서 야훼의 계획에 의해 움직여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멸망과 포로기라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온 세계가 야훼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통치 아래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섭리 속에서 인간은 다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인생을 뜻 피워 갈 수 있는 것이다.

2)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과 마무리(창 22: 15-19)

창 22장 15-18절은 야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고, 아브라함의 장소의 이동을 보도하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야훼의 사자의 말씀은 긴 말씀의 서두와 맹세의 선언(창 22: 15-16a)과 맹세의 내용(창 22: 16b-18)으로 이루어져 있다.

맹세의 내용은 두 차례의 (약속 형태의) 축복과 두 차례의 축복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의 축복은 동기를 설명하고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의 축복은 축복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동기의 내용은 창 22장 1-1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의 실행을 언급하고 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즉,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창 22: 16b),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모두 세 가지이다. 첫째는 축복의 약속이며, 둘째의 증대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창 22:

44) 로스는 하나님 경외의 의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앨런 P. 로스, 「창세기(두란노 강해 주석1)」(강 성열 옮김), (서울: 두란노, 1993), 134쪽.

45) 신 33: 2 폰 라드는 이 문장이 이스라엘의 지상왕국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G. 폰 라드, 「신명기(국제성서주석5)」(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205쪽을 참조함.

17ay)이며, 셋째는 군사적 강성함 “네 씨가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창 22: 17b)로, 그 내용은 강한 국가의 약속이다.

그러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온 세계를 위한 축복의 중재자 -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창 22: 18a) - 가 될 것을 약속한다.

첫 번째의 축복이 강한 국가의 열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축복은 표면적으로는 세계의 중심 국가에 대한 열망이다. 그러나 물리적 힘에 의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가치 표준의 형성과 전파자로서 세계의 중심 국가를 지향한다. 따라서 두 번째의 축복은 첫 번째의 축복의 물리적 군사적 성격을 지양하고,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의 축복은 첫 번째의 축복으로부터의 확장이 아니라, 성격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창 22장 16-17절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와 포로 전환기에 가졌던 증대의 신학에 기초한 ‘축복 형태로 주어진 약속’을 보여준다.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신의 정체성 보존과 새로운 국가의 비전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이들의 약속은 증대의 약속을 동반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귀환 후 새롭게 이룩해야 할 국가에 대한 비전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강력한 국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창 22장 16-17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 국가의 성립의 방법과 위상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창 22: 17a a) 민족이 증대되고(창 22: 17aβy), 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강력한 군대(창 22: 17b)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경외라는 순종적 행위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위대한 국가’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주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거기에는 상속자조차도 포기하는 절대적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 22장 18절에서는 이러한 증대의 신학에 기초한 축복의 약속에 머물지 않는다. 창 22장 18절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체한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온 세계와 그 세계에 속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⁴⁶⁾ 이전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에게만 관심과 보

호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집중했으나, 이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 모두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살펴보게 되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닌 열방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확장정복을 통한 강한 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계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성장에 기초하여 창 22장 18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 표준을 제시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이웃의 축복을 위해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나라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 이룩하는 정복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세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의 성숙은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통해 확립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포기(제사)를 요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포기(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았듯이, 이스라엘은 이삭(제사)으로 대표되는 민족적 폐쇄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물리적 힘에 의한 강력한 국가의 이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전적위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중재자'(창 22: 18a)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의 열방에게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달린 사고"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열린 사고"를 제시하고, 이스라엘은 가치 표준에 근거한 모범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 앞에 자리 매김 하는 것이다.

창 22장 16-18절에서 제시된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과 그 결과의

46) 한 동구 "아브라함의 비전과 한국의 비전: 세계를 위한 축복의 중재자" 「한국기독교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8년 10월 17-18일), 29-45쪽.

47) 한 동구는 전승사적 연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기인식은 크고 강한 나라(עַם חָזָק וְגִבּוֹר) 창 18장 18a절)에서 위대한 나라(עַם גָּדוֹל וְעָצוּם) 창 12장 12절)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통권 29집(2008년 9월 30일), 10-30쪽, 참조 한 동구, "약속의 신학: 족장사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통권 27집(2008년 3월 31일), 90-112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문헌층과 개정층에 나타난 “약속 형태로 주어진 축복”의 비교

	보상(축복의 약속)의 전체	보상(축복의 약속)의 근거	보상(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축복)	보상(축복)의 결과
초기 문헌층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통과 (창 22: 1-14)	순종적 행위(16b절) 내가 이 일을 행하였기에 즉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위대한 국가(17절)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민족의 증대와 번성. 이방민족 정복을 통한 강력한 국가. 세계의 중심.
개정층		가치표준에 의한 순종적 행위(18b절) 내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축복의 중재자(18a절)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은 세계가 하나의 가족. 복의 길을 제시하는 축복의 중재자.

4. 요약 및 결론

창 22장 1-19절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적 행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통찰력과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의 멸망과 포로기를 거치며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창 22장 1-19절은 이러한 역사 이해를 기초하여 “하나님 경외” -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신뢰, 절대 순종 - 를 통해 이스라엘의 비전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창 22장의 초기 문헌층(창 22: 16-17)은 증대의 신학에 기초한 ‘축복 형태로 주어진 약속’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이룩해야 할 국가의 비전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강력한 국가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이삭(상속자)조차도 포기하는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창 22장의 개정층(창 22: 18)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중재자'로 자리 매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힘을 통한 정복 국가가 아니라 바른 가치 표준의 실천을 통해 세계를 섬기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축복의 중재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계에서 ‘아들로서의 이삭’으로 표현되는 민족적 폐쇄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물리적 힘에 의한 강력한 국가의 이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전적 위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델로서의 모습을 세계의 열방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가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6. 참고 문헌

- 게제니우스, 빌헬름,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 정의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김 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 _____, 「창세기(전망성서주해)」(서울: 전망사, 1993).
- _____,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난 신앙과 신학의 해후 - 창 22:1-19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신학연구」 제 29집 (2003년 12월), 9-30쪽.
- 레빈, 크리스토프, 「편집자 야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 로스, 앨런 P., 「창세기(두란노 강해 주석1)」(강 성열 옮김), (서울: 두란노, 1993).
- 부르거만, 월터, 「창세기(현대성서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베스터만, 클라우스, 「창세기 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들, 1998).
- 리얼, 토마스, 「창세기(하) (베이커성경주석2)」(이 기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 1984).
- 서 인석,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 창 22: 1-19의 구조분석,” 「기독교사상」 제 99호 (1983년 5월), 97-119쪽.
- 알베르츠, 라이너, 「포로시대 이스라엘」(배 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 _____, 「이스라엘 종교사 II」(강 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오 원근, “회년서의 아브라함,” 「한국구약학회 제78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08년 9월 25일), 95-97쪽.
- 왕 대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서울: 종로서적, 1995).
- _____, “아케다(aqedah)와 골고다-창세기 22:1-19의 재해석,” 「신학사상」 제 115집 (2001년 12월), 211-236쪽.
- 웬함, 고든, 「창세기(WBC주석)」(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 이 승구,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창 22:1-19),” 「교회와문화」 제14호(2005년),

83-97쪽.

- 정 태현,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창세기 해설서」 (광주: 생활성서사, 1992).
- 차 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천 사무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성경연구」 제8권 12호(2002년 12월), 45-56쪽.
- 폰 라드, G., 「창세기(국제성서두석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 _____, 「아브라함의 제사」 (장 익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한 동구, 「오경이해」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_____, 「창세기 해석」 (성남: 이마고데이, 2003).
- _____, “약속의 신학: 족장사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제14권 1호(2008년 3월), 90-112쪽.
- _____,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제14권 3호(2008년 9월), 10-30쪽.
- _____, “아브라함의 비전과 한국의 비전: 세계를 위한 축복의 중재자,” [한국기독교학회 제 37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상)] (2008년 10월 17-18일), 29-45쪽.
- Alexander, D. T., *Abraham in the Negev* (A source-critical investigation of GENESIS 20:1-22:19),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7).
- Botterweck, J. G./H. Ringgren/H. J. Fabr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IX., (Green, David E. 옮김),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8), 443-455쪽.
- Gunkel, H., *Genesis*, (M. E. Biddle 옮김), (Macon: Mercer Univ. Press, 1977).
- Kalimi, I., “The Land of Moriah, Mount Moriah, and the Site of Solomon’s Temple in Biblical Historiography,” *HTR*, 83/4 (1990), 345-362쪽.
- Sarna, N. M.,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검색어

창세기 22장 • 편집 비평 • 시험 • 경외
큰 민족 • 축복의 중재자

투고일: 2009년 1월 25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15일

Abraham's Sacrifice of Isaac:
A Redaction Criticism of Genesis 22:1-19

Jin-Hyung Woo

Pastor at Oh-Sung Jaeil Church
Pyeong Taek University Ph.D.

This paper examines Genesis 22: 1-19, 'Abraham's sacrifice of Isaac', to read a self-understanding of Israel, particularly by means of redaction criticism.

In the redactional examination Genesis 20-22 is a consistent one layer: especially the chapter 22 is a conclusion of the ideas that begun in 20. Through the story, it seems that the redactor wanted to present a new value and norm of life required by the Israelite in the face of a new era.

In the paper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Isaac as a son' to the Israelite is sought for: telling the early literary layer and the revised layer in the analysis of Genesis 22: 1-19, it is studied what 'God's test and Abraham's obedience' in concern of sacrificing Isaac means to the Israelite. The redactor employs the story as an example to argue that, in the world where God sovereigns, Israel has to resign from building

up a 'great nation' by power but come up as an 'intercessor of blessing'
by way of the fear of God.

Keywords

Genesis 22
Redaction Criticism
Test of God
Fear of God
Great nation
Intercessor of blessing